

빌립보서
#C2606
Pastor Chuck Smith

1장

Now, that we might continue to grow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let us turn to Philippians 1.

Paul the apostle was arrested in Jerusalem, held in prison in Caesarea for two years until he appealed to Caesar and was brought as a prisoner to Caesar in Rome, in order that he might appear before Caesar and appeal his case. While Paul was in Rome for two years awaiting his appearance before Caesar, he was under house arrest. He was able to rent his own quarters, however, twenty-four hours a day he was chained to one of the Roman guards. There were in Rome some ten thousand elite soldiers who had been appointed as the imperial guard and whose chief duty was the protection of the emperor in Rome. One of these men were chained to Paul on shifts, twenty-four hours a day, for two years. Paul saw that as a tremendous opportunity to witness. They can't get away, and as the result of Paul's witnessing to these men, many of them of Caesar's household were brought to the saving knowledge of Jesus Christ. Quite a revival there in Rome while Paul was there awaiting his appearance before Caesar.

이제,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펴시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이사 앞에서 자신의 사건을 항소하려고 가이사에게 항소했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죄수로 끌려올때까지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 로마에서 2년간 기다리고 있는동안, 바울은 가옥 연금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구할수도 있었으나, 하루 24시간씩 로마의 한 호위병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왕의 호위대로 임명받은 약 만명의 정예부대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주된 임무는 로마황제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 중 한명이 교대로 하루 24시간, 2년동안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엄청난 전도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으므로, 바울의 전도로 인해 많은 가이사의 부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의 앞에 서기를 기다리는 동안 로마에서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The church in Philippi took up an offering for him and sent him a very generous offering. It was brought to him by Epaphroditus, who on the way became extremely ill and almost died, but he brought to Paul this gift from the hearts of those in Philippi, and basically this letter that Paul writes to them from the prison in Rome is a letter of thanksgiving and gratitude for the money that they had sent to him by Epaphroditus. And so, that really was the occasion of Paul's writing this epistle. It is written not as from an apostle to the church as are most of Paul epistles, but it is written as a letter from friend to friend. There is a very warm, friendly feeling through the whole epistle; it is interesting that the tone of the epistle is one of extreme joy and rejoicing. Interesting in the fact that during the

time that Paul was doing all of this rejoicing, he was chained to a Roman guard in a Roman prison. Some of you perhaps visit Rome on occasion and were led into the Mamertin prison where tradition says Paul was held. It isn't a very attractive place; it is sort of under ground, the light comes in from a window up above, but yet, Paul always had the light within him, and thus, as he declares, "I have learned in whatever state I am in to therewith be content. I know how to abound. I know how to be abased. I'm content because my contentment does not lie in my circumstances. My contentment lies in my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and that cannot change. My circumstances may change, I may be in tough physical circumstances, but my contentment isn't in that. My contentment is in Jesus." And it is important that we also learn to find our contentment in Jesus Christ, because then we can learn whatever our condition is to be content.

(이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모금하여 보냈습니다. 이 헌금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어지게 되었는데, 그가 도중에 심하게 아파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바울에게 무사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받은 헌금에 대해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동기입니다. 사도로서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친구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서신 전체에서 따뜻하고 정감이 느껴집니다. 이 서신에서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동안, 그는 로마군사와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로마를 방문했을 당시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Marrertin** 감옥을 가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 좋은 곳이 아니며, 지하에다 빛도 높은 창문으로 들어 오지만, 바울은 자신속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함을 배웠노라... 매일줄도 알고, 농일줄도 안다... 나의 만족이 환경속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변치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속에서 오는 것이다...나의 환경은 변할 수도 있고, 힘든 육체적 환경속에 있을수도 있으나 그것은 나의 만족은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안에 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기를 배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Paul opens this epistle, and along with the little letter to Philemon and 1 Thessalonians, it's the only epistle where he does not begin by the affirmation of his apostleship. Usually, it is, "Paul an apostle by the will of God." But he is writing now as a friend to a friend.

Paul and Timothy, the servants of Jesus Christ (1:1),

The word *servant* here in Greek is *doulos*, which is bondsslave.

Now, there was a phrase concerning the bondslaves of Jesus Christ and that phrase went, "To serve Him is to reign as king." So, Paul a servant, but yet, to serve Jesus is to reign as a king, to be his bondsslave.

Now, the word *doulos*, bondsslave is more than just a servant. A servant was a person who was hired who had the freedom if he didn't like his job to quit and find a job someplace else. Not so with a bondsslave. Like it or not, you were the

property of your owner. The servant could come and go as he pleased, not the bondsman. Bond slavery was something that was for life. Paul the apostle, the bondsman, Paul and Timothy bondsmen,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1:1)

빌립보서는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더불어 바울이 서두에 사도임을 명시하지 않은 유일한 서신입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서신은 친구가 친구에게 쓰는 편지형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1:1)

종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둘로스, 즉 **종** 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곧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왕이신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로스, 즉 종은 하인보다 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인은 고용된 사람이고 그가 자기의 일이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지만, 종은 그렇지 못합니다. 종든지 싫든지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하인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오고갈 수 있으나, 종은 그렇지 못합니다. 종 살이는 그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요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1:1)

The word *saints* has come under a lot of abuse. We've lost the sort of meaning of the word; the word comes from the Greek word *hagios*, which means *holy*, and so really, he is writing to those who are consecrated. A lot of times you read, "Unto the saints," and you say, "Oh, this don't apply to me; I'm surely no saint." But it is unto those who are consecrated to Jesus Christ. And so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 *saint*, holy or consecrated.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which are at Philippi, with the bishops [overseers] and deacons [workers] (1:1):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남용되었고,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하기오스 (**Hagios**) 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며, 바울은 실제로 성별된 이들에게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에게” 라는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오, 이것은 나에게 적용이 안돼. 나는 확실히 성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의미의 성도는 거룩하다, 혹은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1)

I go to the Greek word themselves to translate them so that we get the...again bishops, we think of some guy who was over a whole bunch of churches. But they were the overseers within the local church, and the deacons were the workers. Those workers within the church.

헬라어 원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흔히 감독이라고하면, 여러교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실제로는 지교회안에서의 감독들을 말하며, 집사들도 교회안에서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You remember Philippi was the first place Paul came to when he brought the gospel to Europe. He was in Troas. He received the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saying, "Come over and help us," and Paul immediately went down, caught a ship to Macedonia. They came to Philippi, and there Paul found a group of women who were worshipping on Saturday out by the river. They were Jews.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에 처음으로 온 곳입니다. 그가 드로아에 있을때,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 곧장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향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 바울은 한 무리의 여성들이 토요일에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Now, this means that there was not a large Jewish community in Philippi. For where in a community they have ten adult Jewish males, they had the obligation to build a synagogue, but if there wasn't ten adult Jewish males, then they usually met in an outdoor area, usually by a river or a place of beauty and all. And so, the indication is that there were not many Jews in Philippi, and thus, meeting by the river. Paul went out and met with the women that were there, and he shared Christ and many of them received. He started a work there in Philippi. He wasn't able to minister very long because the Jews who found out that the women were converted began to stir up trouble. They had Paul arrested. He was beaten. He was thrown into the dungeon where he and Silas at the midnight hour were singing and praising the Lord, when suddenly, the prison was shaken by an earthquake and the doors were opened and they were freed. And the jailer, realizing that awakening from his sleep and seeing what had happened, took his sword and was ready to kill himself, and Paul said, "Do yourself no harm. We are all here."

그것은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동네에 유대인 남자 열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야할 의무가 있는데, 열명이 안되면 주로 강가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야외에서 모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얼마되지 않아 강가에서 모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나가서 거기 있는 여성들을 만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들이 영접하게 되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유대인들이 개종된 여성들이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한다고하여 그의 사역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한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며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정신을 차려 되어진 일을 보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습니다.

You see, under the Roman rule if you were a guard and your prisoners escaped, then you had to take the penalty of the prisoners. So, better to commit suicide, really, than to face the wrath of the Roman justice, having lost the prisoners that were entrusted to you.

And so the man came in to Paul trembling, and he sai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And Paul sai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and thy house." And so he took Paul home and washed the caked blood off of his back as a result of the beating, and then he gave him something to eat. Paul shared with the family, and they all received Jesus Christ and were all baptized.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church of Philippi.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자신이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했을 경우, 본인이 그 죄수들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죄수들을 잃고 로마법원의 징벌을 받는 것 보다 차라리 자결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떨며 다가와, “선생님, 어찌하면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자,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했습니다. 그는 곧 바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매를 맞아 등에 생긴 상처를 닦아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울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온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빌립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Now the magistrates of the city, those who had arrested Paul were responsible for that, they came and said, "Let him go. We don't really have charges, so just let him go." And Paul said, "Hey, wait a minute. I am a Roman citizen and I have been beaten without any charges being filed. There has been an injustice here." Philippi was one of the main Roman cities. It was supposed to have been a model of Roman justice, and so he said, "They think they are just going to send me away. Let them come down; let the mayor come down himself and pardon me, you know, and let me go." And they went back and they said, "Did you know that they are Roman citizens?" "Oh no," and he knew that he had blown it. And so, he came down and said, "Please would you get out of town. Just go, you know we are sorry, just go."

Now, from that small beginning the Spirit of God did a work. The church had grown to the place where they had to have overseers; they had deacons and administrators. The work of God had expanded, and they had taken up a generous offering for Paul and sent it to him. And so, from that early beginning God began a good work, and he did really perform a very, really special work there in Philippi. So to the overseers and the worker,

Grace be unto you, and peace (1:2),

한편, 바울을 붙잡은 도시의 상관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를 놓아주자. 별다른 죄가 없으니 놓아주자.” 고 하자, 바울은 “잠깐만, 나는 로마시민이고,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고 고초를 당했는데, 이는 불공평한 재판이었다.” 빌립보는 로마 정의의 표본이 되는 중요한 도시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를 그냥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들과 시장이 직접와서 사과하고 나를 보내라.”고 하자, 그들이 돌아가서 말하기를 “저들이 로마시민인줄 자네는 알았는가?”, “아니!” 하며, 자신들이 크게 잘못된것을 알고 바울에게 와서, “제발 이 도시를 떠나시오. 우리가 잘못했으니, 당장 떠나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작은 시작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감독들이 있어야 할만큼 부흥했고, 집사들과 관리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날로 더 확장되어, 그들이 후히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시작부터 선한일을 이루시고, 빌립보에서 아주 특별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1:2)

Now, we have come across these Siamese twins many times in the New Testament, and they are typical Pauline salutations as he opens his epistle so often with this, "Grace and peace be un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 (1:2).

Again, I would like to emphasize, and I don't think we can too much, the fact that the Lord is not His name; it is His title. And we should not consider it or think of it as a name. We are talking of relationship when we say *the Lord*. Jesus is His name. As we were singing, "His name is Jesus, Jesus, sad hearts weep no more." His name is Jesus, or in the Hebrew, Jehoshua. But Lord is His title, and if we use the title of Lord, then that does signify that we take the position with Paul as a bonds slave. It's talking of relationship from our Lord Jesus Christ.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바울식의 안부인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써... (1:2)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생각해서는 아됩니다. 우리가 “주”라고 할 때는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그 이름 예수, 예수, 슬픈 마음들이 더 울지 않으리...”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시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주”는 명칭이고, 우리가 주라 부를때, 바울과 같이 주님의 노예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I thank my God upon every remembrance of you (1:3),

So Paul, every time he remembered the work of God there in Philippi, was thanking God for them.

John in writing his epistle said,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know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ruth" (3 John 4). I think that that can be said of the heart of every minister. The greatest joy that can come to any minister is to know that those

who are really the children in the faith as the result of their ministry continue to walk in the truth.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3)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삼 1:4) 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목회에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꾸준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Being in the ministry has tremendous rewards, and it is just thrilling to see the work that God does in various areas. This morning, as I was at the back door greeting the people as they were departing, there was a lady with her husband there, and their daughter, and her husband. As they approached me, I could see tears just welling up in their eyes. As they shook my hand, they said, "We are from New York and we listen to your radio program. And we have started a Bible study in our home, and we listen to your tapes and God is just blessing tremendously. We have so many people that are coming and being blessed through the word of God, and what a thrill for us to meet you and to be here today." As tears just began to stream down their face. And I tell you, you don't think that's not rewarding, to just see the fruit of the ministry. How you thank God for the work that He is doing. How you thank God for the privilege of being His instrument through which He might work.

여러방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너무도 흥분되며, 그것이 목회생활에서 크나 큰 보람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 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 한 여성도가 그녀의 가족과 함께 다가와 눈물이 걸썩하여 악수를 하며 제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뉴욕에서 왔는데, 목사님의 라디오 방송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목사님의 설교테잎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을 이곳에서 뵈니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의 열매를 보는 보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And so Paul, God's instrument, is now giving thanks unto God for the report that comes from Philippi of their continuance in the walk and in the faith. Every time he remembered them, he would say, "Oh, thank God." Every time I think of you, I just thank God for the work that He is doing by His Spirit.

Always in every prayer of mine for you all making request with joy

(1:4),

So he is thanking God, praying for them always, but there is always a certain joyfulness involved with it because of the work that God is doing there. And he is thanking God for your fellow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4)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안에서 서로 교제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Now that fellowship, ideal fellowship, the koinonia, is that oneness in the gospel, and no doubt also in this case refers to the support that they had given to Paul through the years. As he was writing to the Galatians, he said that they who are taught in the word ought to communicate unto them that teach in all good things. So, that the church in Philippi had been faithfully supporting Paul through the years, and so there was that oneness, the sharing, and you remember in the early church, if anyone had anything, they sold it and they brought it and laid it at the apostles feet, and they had all things in koinonia. This is the same Greek word here. There was just that sharing together of the welfare of their resources with Paul.

바로 그 교제, 이상적인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복음에 하나됨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바울을 수년동안 도왔던 것을 말하는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오랫동안 성실히 바울을 돕고, 서로 하나되어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모든 것을 코이노니아로 가졌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진 자원을 바울과 함께 서로 나누었습니다.

For your fellowship [or oneness, a communion]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that he had been there in Philippi] until now [even to the present time]; being confident of this very thing, that he which hath begun a good work in you will perform it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1:5-6):

첫날부터 (바울이 빌립보에 거한 날부터) 이제까지 (현재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 (하나됨, 혹은 **친교**)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하노라. (1:5-6)

Which is, of course, the day in which Christ comes. The day that Christ comes for His church. I am confident that God is able to just continue the work that He started. Now, a lot of times,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at confidence.

In the book of Hebrews, Jesus is called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 And we have got to realize what God has begun He is going to finish. He is not like us. He doesn't start a lot of projects that He doesn't finish. By virtue of the fact that God has begun a work in my life, I am confident that God is going to complete that

work in my life. And Paul said, "We are confident of this very thing that He who has begun the good work in you will continue to perform it, unto the day that Jesus comes" (Philippians 1:6). I have that confidence.

There is another scripture that says the Lord will perfect that which concerns you. The word *perfect* means complete. God is going to complete those things that concern you. He is going to complete that work of His Spirit within your life. He has begun it. He will finish it. He is the author and the finisher.

물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시작해 놓고 다 끝내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에 힘입어, 그분이 또한 완성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너희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하노라. (1:6)” 고 말했듯이, 저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구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는 시작하신 분이시며 끝내실 분이십니다.

Even as it is meet [necessary] for me to think this of you all, because I have you in my heart; inasmuch as both in my bonds, and in the defense and confirmation of the gospel, ye all are partakers of my grace (1:7).

So, you see the personal nature of this letter. It's really from Paul's heart to them as he just opens up and bears his heart to them, and again that oneness that they share together, for they are partakers with Paul of the grace of God. And they are sharing with him, who at this time is in bonds. He is in prison because of his defense of the gospel, and so they are sharing with him through these various experiences.

For God is my record, how greatly I long after you all in the bowels [compassion] of Jesus Christ (1:8).

Paul said, "That love of Christ constrains me, I long for you with a compassion that Jesus Christ has put in my heart for you."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1:7)

여기서, 사적인 성향의 편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명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1:8)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너희를 향한 **연민**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고 했습니다.

And this I pray, that your love may abound yet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in all judgment (1:9);

Now, Paul said he thanked God for the fellowship that they had together, but he also prayed for them, and this is Paul's prayer: that thei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all knowledge.

You know that there is a phrase, to know Him is to love Him. The reason why Jesus said, "Learn of Me," is that He wants you to know how much He loves you. Learn of Him, learn of how much He loves you, because Jesus knows the more you know Him, the more you will know His love for you and the more you know His love for you, the more response you will have towards that love in your loving Him. So that you might abound more and more in that love of Christ as you gain the knowledge of that love.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9)

바울은 그들과 함께한 친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알수록 당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수록 당신이 그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할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That ye may approve things that are excellent; that ye may be sincere and without offense till the day of Christ (1:10);

Again, the reference to the coming of Jesus Christ. Now, He is able to keep you unto the day that He comes. And this is how Paul wants them to be: growing more and more in their love and in their knowledge that they might approve or live after those things which are excellent and be sincere.

The word *sincere*, of course, comes from the Latin word *sincere*; two words actually, *sin*, without, and *cere* is wax. Now, during the days of Rome there were a lot of artisans. Everybody was anybody who could find the hammer and the chisel and were carving away on marble, and throughout the old world, I mean, you could find all kinds of statues. You go to the museums and just row after row after row of marble statues, and there was just something that was very common in those days, the working in marble.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0)

여기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바입니다: 사랑과 지식에 더욱 더 자라서 지극히 훌륭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란 단어는 라틴어 *sincere* 에서 나왔습니다; *sin* (없이) 와 *cere* (wax, 왁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과거 로마시대엔 많은 기술공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망치와 정을 가졌으면, 대리석을 깎아 조각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 보시면 많은 대리석상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Now, in working in marble, not everyone is perfect. And it might be that you were, you know, trying to shape the nose on the statue that you were making and you slipped and you popped the nose off of the thing. Well, they became extremely clever. They would take the ground marble, mix it with wax, and they could work it out and it could put on a nose out of wax that looks so genuine you couldn't tell it. You would go down to the store, you would see this lovely statue, and say, "Oh, I like that one. I want that one in our entry hall." So you buy this statue and you take it home and put it in your entry hall, and then those hot summer days would come and you would come walking into the house, and the nose had melted and run down over the lips, and you knew it was wax. So the Latin word *sincere*, without wax, without phoniness, genuine. And that's the way Paul wanted them to be: genuine in their faith, no phoniness to it.

하지만, 대리석으로 작업을 할때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코를 만들려고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때 사람들이 피를 내어 대리석 가루와 왁스를 섞어 코를 붙이면, 감쪽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멋진 조각상을 보고, "오, 저기있는 조각상이 보기 좋은데, 우리집 현관 입구에 놔야겠다" 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을 가져다가 현관에 놔더니 무더운 한 여름날, 집에 들어가다 코가 녹아 내려서 입술위에 붙어 있는것을 보고 그것이 왁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진실 (*sincere*) 이란, 왁스가 없는, 속임수가 없는, 꾸밈이 없는 진실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즉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Being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1:11),

Now, the fruit of righteousness is love and joy and peace. Paul wanted them to be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filled with love, filled with joy, filled with peace.

which are by Jesus Christ, un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But I would ye should understand, brethren, that the things which happened unto me have fallen out rather unto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1:11-12);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1:11)

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의의 열매가 충만하여, 사랑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화평도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11-12)

Now, they had been following Paul's career. They were aware of his arrest in Jerusalem. They were aware of his imprisonment in Caesarea, the two years as a political pawn. They were aware of his appeal to Caesar, and now they were aware of his imprisonment in Rome. Here is a man they highly respected. Here is a man they loved greatly. And to realize that he was really in prison on these trumped up charges, really with no basis. It seems like there was sort of a waste of talent. Paul had been so busy in going out and sharing the gospel, and now being in prison it seems like God has made a terrible mistake allowing this warrior of the cross to just be shut up in prison.

이제까지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힌 것과 **가이사랴에서 2년간 정치범으로 수배된 것**,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과 현재 로마에서 옥에 갇힌 것까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날조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아까운 인재가 썩고 있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도 바빴지만 지금은 옥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 군병을 감옥에 갇혀있게 하시는게 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A lot of times we do not understand why God has allowed certain things, and from our viewpoint God has made here a serious mistake. Do you ever think that God has made some mistakes in your lives? There were a lot of times I thought God has surely made a mistake now. My circumstances, my condition, surely this is a mistake. But Paul is assuring them now, what things have happened really God has been using him for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It is marvelous to be able to see the hand of God, even in those places where I am at a personal disadvantage, things that I would not personally choose for myself, to always realize that God probably has His hand in this.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수 없을 때가 많고 우리의 시각으로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대한 실수를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간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조건들이 정말 실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자기를 사용하신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는 선택하지 않을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The other day, Saturday, I started out of the house to come out here to the church, and suddenly I thought, "Oh, I have forgotten my glasses." So, I went back into the house to get my glasses and I didn't see them on the counter, and I realized they were in my pocket. It's what they call senility. It comes with old age. But as I was going back out to the car, the thought came to me, "I wonder if the Lord was sparing me from an accident." You know accidents happen with such precision, split-second timing, that just a moment's delay at this point could very well be protecting you from some accident down the road. So I said, "Thank you, Lord. You know things I don't know, and you are watching over even your dumb little sheep, and you are taking care of those who don't have enough sense to take care of themselves. Whatever it was, whatever purpose, thanks Lord! I appreciate You watching over me."

지난 토요일, 집을 나와 교회로 향하는데, 갑자기 “오, 안경을 잊었군.” 하며, 안경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갔는데, 선반에도 없고, 제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나이가 들면 오는 노화라고 하지요. 하지만, 다시 차로 가는 동안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사고로부터 보호하신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는 한 순간에 일어남으로 잠시 늦춰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피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잘 돌보지 못하는 미련한 양같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엇였든지, 무슨 목적이었든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it is important and it is good to realize that whatever happens to me is happening for a good purpose. God has a plan in mind for my life. So that Paul, as he said to the Roman church,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that love God" (Romans 8:28). Paul is seeing here the good that God is bringing forth from his imprisonment. He is wanting to encourage them who would be prone to question God or doubt God because this marvelous apostle is being wasted in prison. He was assuring them that God's hand and purpose are being accomplished by his imprisonment. "I want you to know that these things that have happened to me, have really happened for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 나든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바울은 자신의 감옥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까운 사도를 감옥에 내버려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의구심을 갖거나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갇힘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When Paul was being brought to Rome and went through that tremendous storm for over fourteen days there in the Mediterranean, he had warned the captain not to set sail. He said, "I perceive a real danger is going to come to us." But the captain told the Roman centurion, "What does that guy know about the seas. I am a captain. I have been on these seas all my life. He is a land lover and doesn't know anything. We can sail." So the centurion said, "Okay, sail." Then they got in that horrible storm where for fourteen days they did not see the sun or stars; the ship was tossed to and fro in the Mediterranean.

바울이 로마로 옮겨질 때 지중해에서 14일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때, 바울은 선장에게 항해를 멈출 것을 경고하며, “우리 앞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라고 했지만, 선장은 백부장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바다에 대해 뭘 아느냐. 내가 선장이다. 내 평생을 바다에 있었다. 이 사람은 물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계속 항해할 수 있다.” 백부장은 “좋다, 항해하라”고 승낙했습니다. 그런후 그들은 엄청난 풍랑을 만나 14일간 해와 별을 보지 못했고 배는 지중해에서 이리저리 떠밀렸습니다.

The mast was broken. They had thrown out all their cargo. They had just really placed themselves, finally, at the mercies of the sea. Everyone was seasick and miserable, and after fourteen days of this, Paul stood up and told them, "I told you that you shouldn't have started out." I love those people. He said, "Be of good cheer. The angel of the Lord stood by me last night and told me that though the ship will be wrecked and destroyed, all of the lives will be saved."

돛대가 부러지자, 배의 짐을 바다에 다 내던지고, 그저 바다가 잠잠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멀미를 하고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4일이 지난 후, 바울이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미 항해를 멈추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안심하라. 간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배는 부서지고 파손될지라도, 모든 사람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Well, the Lord wanted to reach the governor of the island of Malta, and that was just an unusual way of getting Paul to Malta. It wasn't on their planned journey, so God detoured them to Malta. There was no way Paul could have talked the captain in going to Malta. The Lord had souls on Malta that He wanted to reach, so Paul had really a great experience witnessing to the natives and a real revival started and, I am sure, a continuing work of God there on the island of Malta as the result of Paul's visit.

Now, this imprisonment, brought from Malta into Puteoli, on into Rome, and now in prison, but it is all happening for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So that my bonds in Christ are manifest in all of the palace [or the pretorium], and in all other places (1:13);

주님께서 원하신것은 펠리테라는 섬의 족장을 만나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펠리테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정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펠리테를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선장에게 펠리테에 들리자고 말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는 펠리테에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었고, 바울은 토인들에게 전도하는 큰 체험을 했고, 그 섬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펠리테에서 보디올리로, 그후 로마로,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이어졌지만, 이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13)

Now, the palace would have been Nero's palace there in Rome. As we read in other accounts, many of Nero's servants came to know Jesus Christ.

And many of the brethren in the Lord, waxing confident by my bonds, are much more bold to speak the word without fear (1:14).

They see how Paul's testimony is so fearless, how Paul is leading so many of these imperial guards to Jesus Christ. And the boldness of Paul's witness and all emboldened many of them to also begin to really witness for the Lord and to witness boldly for the Lord. Paul said, "It has all happened for good. It is all working out. God is working in this whole thing. My imprisonments and my experiences really are furthering the work of the gospel."

Now he said,

Some indeed preach Christ even of envy and strife; and some also of good will: The one preach Christ of contention, not sincerely, supposing to add affliction to my bonds (1:15-16):

여기서 시위대란 로마에 있는 네로의 시위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읽은 바와같이 네로의 많은 부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14)

그들은 바울의 간증이 담대하고, 얼마나 많은 시위대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전도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졌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간힘과 경험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15-17)

Paul, because he was a dynamic leader and a strong leader, had his enemies as well as his friends. That is the price of leadership. Just the very fact that God is using you is going to create enmity, jealousy, animosity, in the hearts of people. Paul was no exception. There were those who were jealous of Paul's ministry and what God was doing through Paul. They thought to take advantage of the fact he is in bonds. They are going to go out and they are going to try and do their work, out of contention. Their motive was contention, rivalry; rivalry against Paul, building up their own little flock or whatever. Their motives were really wrong in what they were doing, but the very fact that they were doing it, Paul rejoiced.

역동적이고 강한 지도자였던 바울에게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치루는 댓가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신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대감과 질투와 증오심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들을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간혀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경쟁심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경쟁심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자신들의 양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의 동기는 옳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just a tremendous example of the true Christian minister. He doesn't care who is getting the credit; all he cares is that the work of Christ is being accomplished. So God is blessing the Baptist church and it's bursting at the seams; praise the Lord! The Spirit of God is moving in the hearts of those people. Rather than feeling jealous or competitive, rather than saying, "I don't know why God would bless them when we are so much better than they are." You rejoice that God is working and that the work of God is being accomplished. Even if a person comes in with wrong motivations, and they say, "I don't like that Chuck Smith. I am bitter at him. I am going to rip off a part of his flock. We're going to establish our ministry right down the block, and we are going to pick up the disgruntles and everyone else that comes out of there." Praise the Lord people are being ministered to. They are disgruntled with me. They won't come here anymore. Well, bless God there is a place for the disgruntles to meet.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회자의 훌륭한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누가 인정을 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교회를 축복하시니 확장되어 나갑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질투하고 경쟁하며, “우리가 더 나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축복하시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기뻐해야겠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난 척 스미스가 싫어. 그의 교인들을 빼앗아 올거야. 바로 옆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불만이 많은 교인들을 다 모아야겠다.”라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불만이 있어서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테니까요. 불만있는 교인들이 갈 곳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Christ is being preached. The motive may not be right within their hearts, but that doesn't matter. Paul said, "To me I am thrilled that the work of God is spreading in this community." Some of them have wrong motives, contentions, really trying to add to Paul's afflictions.

But the other of love, knowing that I am set for the defense of the gospel. What then? notwithstanding, every way, whether in pretense, or in truth, Christ is preached; and I therein do rejoice, yea, and will rejoice (1:17-18).

So beautiful!

According to my earnest expectation and my hope, that in nothing I shall be ashamed, but that with all boldness, as always, so now also Christ shall be magnified in my body, whether it be by life, or by death (1:20).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속에 동기는 옳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이 지역에 전파되는 것이 내게 전율을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동기와, 경쟁심으로 바울의 고통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18)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파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1:20)

At this point, Paul was facing Caesar Nero, and he really did not know whether or not he would receive the sentence of death from Nero. Now, he knew that Nero had a general opposition to the preach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He knew that Nero saw Jesus Christ as a threat. Nero had ordered that the people confess that Caesar is Lord. Those that refused to confess that Caesar was Lord would be put to death. Paul was going to be facing now this little tyrant. He says, "Pray for me that I might be as bold as I have always been, not going to back down now in this situation, just because I am going to be facing this tyrant Caesar. My expectation, my hope that I will not be ashamed, that I will speak the truth boldly, though the consequence may be my head."

이 시점에서, 바울은 **가이사 네로** 앞에 서서, 사형을 선고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네로가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가이사를 주로 시인하도록 명령했고,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폭군을 마주 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폭군 가이사를 만나게 될테니 내가 폭군 가이사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기를 기도해 주시오. 나의 기대와 소망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진리를 담대히 말하여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It is interesting from a historical standpoint that Paul appeared before Caesar Nero twice. Once, on his appeal in Caesarea, he had appealed to Caesar, and the first time Paul appeared, Caesar Nero set him free. The charges were baseless. Paul was set free. A couple of years later he was rearrested and brought back to Rome and Caesar Nero ordered him beheaded. So, Paul died a martyr death and he was beheaded by the edict of Caesar Nero. But, as you look at history, an interesting thing: number one, we know that Jesus had told his disciples that they were going to be hailed before the magistrates and before kings. But He said, "Don't take any forethought what you are going to say because in that hour the Holy Spirit will give you the words, and these things will turn for your testimony, or the appearances will give you an opportunity to testify."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바울이 가이사 앞에 두 번 섰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한번은 가이사라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을 때 네로 황제는 그를 무죄로 놓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바울은 다시 붙잡혀 로마로 이송됐고, 가이사는 사형을 선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흥미있는 사실은: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너희의 하는 말이 증거가 되며 그들 앞에 설 때 증거할 기회가 되리라.”

So, as you read Paul's defenses before the judges and before the kings, he appeared before King Agrippa; he appeared before Felix and before Festus. On every occasion Paul took the occasion to testify, to tell of the work of God's Spirit in his life, and he witnessed to his being born again by the power of Jesus Christ. Every time that he appeared before any of these magistrates, it was just to Paul an opportunity to testify for Jesus Christ. The higher the position of the person before whom Paul was appearing, the more fervent was Paul's testimony, the more earnest was Paul in his endeavor to convert the person, because Paul always thought, "Wow, with the influence and position this guy has, think of what it could do for the gospel if he were saved."

바울이 아그립과 왕과 벨릭스와 베스도등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변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기회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증거했습니다. 매번 총독들앞에 설 때마다 그것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힘을 다해 증거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와,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When he appeared before King Agrippa, man, did he ever lay on a heavy testimony. When he was coming to the close, he said, "Agrippa,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I know you believe the scriptures." And he was really coming to the close, and Festus cried out, "Paul, you're crazy! You have been studying too hard. You have lost your mind." Paul came right back and began to press Agrippa, until he said, "Wait a minute, you mean you are trying to convert me to be a Christian? You're trying to persuade me?" Paul said, "I sure wish you were, just like me, except I wouldn't wish you to have these bonds on you. But oh, how I wish you were."

그가 아그립바 왕 앞에 섰을 때도 너무나 중대한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왕이여, 당신은 성경말씀을 믿으시 나이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는 열심히 전했습니다. 베스도는 소리치며,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아그립바왕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잠깐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네가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느냐?” 바울은, “나의 매임을 제외하고는, 진정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Paul appearing before Nero, don't you know he really turned it on. I mean, he felt no doubt, if I can convert Nero, think of what that will do for the gospel if the emperor becomes a Christian. I am sure he laid on the heaviest witness anybody has ever heard at any time in history when he got before Nero.

It is interesting as you study the history of Nero, up to this point in history, up to the point that Paul appeared before him, he was a fairly decent ruler. After Paul's appearance, there was a sudden and dramatic change in Nero's personality recorded in history. He became almost a mad man. In fact, many did think that he became insane. There is that likelihood that God, through Paul, was giving to Caesar Nero the opportunity of being saved and the testimony and the witness was so powerful, that in his rejection of that testimony, his complete rejection of Jesus Christ, that Caesar Nero at that point became demon possessed. There are certainly things in history to indicate demon possession in Caesar Nero, and also in the scriptures.

바울은 네로앞에 섰을때 그가 정말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의심의 여지도 없이 바울은,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며 이제까지 전도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네로 앞에서 더 열심히 힘껏 전도 했을것이 확실합니다.

네로에 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흥미있는 사실은, 네로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점잖은 통치자였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난 후, 네로의 성격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네로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바울의 간증과 증거가 너무도 강렬하여, 네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강한 거부가 그를 악령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역사와 성경에서 그가 악령에 사로잡힌 사실들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Caesar Nero became a madman. In his persecution of the church, he became inhumane. They would tie Christians on posts in his garden, cover them with tar, and set them on fire to light his garden in the evening, as he would get in his chariot naked and race through the paths of his garden. Christians lighting them, torched there in the garden. It was inhumane and horrible.

It is an interesting study as you study carefully the history of Nero, and this dramatic change just about the time that Paul witnessed to him. He then, of course, burned Rome in his desire to build a new and greater Rome, one that would be named after him and leave his monument, and then blame the Christians. That was when Paul was recalled and arrested in Ephesus, and brought back to Rome, and then beheaded by Caesar Nero.

가이사 네로는 미친사람이 되어, 그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묶어 자신의 정원에 기둥으로 세워 그위에 코올타르를 바른후 불을 질러 저녁에 등불로 사용했고, 별거벗은 채로 마차를 타고 뜰을 가로질러 달리는 등 잔인하고 참혹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네로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면 재미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바울이 그에게 전도했을 즈음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는 로마를 불태우고 새롭고 더 큰 도시를 재건하여 자신의 이름을 불히며 기념비를 만들려고 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때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환되어서 붙잡혀 다시 로마로 이송되었고 그 후에 네로에 의해 사형당했을 당시입니다.

Now, whether or not Paul was writing it during the first imprisonment or second is not known for certain. It was probably the first, but even at this point, his outcome is uncertain. Paul expresses, "Hey, my desire is that Christ be magnifi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I really don't care. I just want to live for the glory of Jesus Christ." "God forbid," he wrote, "that I should glory except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I am not looking for anything for myself; I am looking that my life will bring glory and honor to Christ. That Christ be magnifi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doesn't make any difference."

For to me to live is Christ (1:21),

바울이 첫번째 투옥을 당했을 때인지 두번째인지는 확실히 알수 없으나, 아마도 첫번째 투옥 때 인것 같습니다만, 이 때였다손 치더라도 결과가 분명치 않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1:21)

He is the center of my existence. My life revolves around him.

Again, if you were to say, "To me to live," what would you have to say? To me to live is the Indy 500. To me to live is playing a guitar. To me to live is... And so many people are living for so many things. Paul said, "For me to live is Christ." Because he said for me to live is Christ, he can also say,

and to die is gain (1:21).

You can't say that if you are living for anything else. To me, to live is to be wealthy, to mass a fortune, and to die is to lose it all. To die is loss. You can only say to die is gain when you have lived your life for Jesus Christ. That is why if a person lives their life for Jesus Christ, we don't have to, and we should not, grieve over their death. We can grieve over our loss. We sorrow, but not as those who have no hope; we sorrow because we are going to miss them. But, we don't sorrow for them. We don't grieve for them. For if a person is living for Christ, to die is gain.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삶은 그분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자동차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은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이 갖가지의 많은 것들을 위해 삽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1:21)

만일 여러분이 다른 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재물이다, 재산을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죽는 것은 그것을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에 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 슬퍼하지도, 슬퍼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애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But if I live in the flesh [I really don'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now], this is the fruit of my labor: yet what I shall choose I wot not [I really don't know] (1:22).

If you ask, "What would you choose, Paul? Do you want to live or die?" I really don't know. For he said,

For I am in a strait betwixt two, having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which is far better (1:23):

Now, if soul sleep was a legitimate doctrine, then Paul the apostle surely did not understand the doctrine. He would not then express himself this way concerning death. "I am in a strait betwixt two, having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asleep, awaiting the great day of the Lord. No, I have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Paul's understanding that death would free his spirit from his body, that his spirit might immediately be with the Lord in Heaven.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내일의 열매일편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전혀 알수 없다.)” (1:22)

바울에게, “삶과 죽음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1:23)

만일 영혼이 잠잔다는 교리가 맞는 교리라면,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했다면, 죽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육신을 떠나 잠자는 것과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 중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죽음을 영이 육체를 떠나 바로 주님과 천국에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In writing his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he said, "For we know that when this tent, the earthly body in which we presently live, is dissolved, that we have a building of God that is not made with hands that i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still living in these bodies do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freed from them, not that I would be in an unembodied spirit, not that I would be unclothed, but that I might be clothed upon with the body which is from heaven. For we know that as long as we are living in these bodies, we are absent from the Lord. So we would choose rather to be absent from these bodies, and to be present with the Lord." Consistent with what he is saying here to the Philippians.

고린도후서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면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후5:1-8) 그가 말하는것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것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For I have the desire to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which is far better. So I really don't know what to choose. I am really in a strait. I'm facing life or death, and I don't know, but I don't really know what I want." There is a desire. We in this body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freed from these bodies. Not to be unembodied, but to be clothed upon with the body which is in heaven. So, we in these bodies groaning earnestly desiring. So I have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which is far better.

Now, do you really believe that? You see, we have the wrong attitude towards death. "Oh, my, what a shame, what a pity that he should die. Oh, how terrible, what a loss." You just don't understand what death is for the child of God. But Paul said,

Nevertheless to abide in the flesh [for me to continue to stay in this body of flesh] is more needful for you (1:24).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나으나, 무엇을 택할지는 모르겠다. 삶과 죽음을 직면하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분명 원함은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우리는 육체를 떠나고자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몸으로 덧입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속에 있는 우리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불쌍한 일인가. 너무나 끔찍하고 막대한 손실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내가 계속 육을 입고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1:24)

"You need me. Now, I would like to go, my desire is to go and be with Christ, but you need me. I am torn, torn by your need of my continued ministry, and by my desire to be with the Lord." I think that that is always true, we are sort of in a strait betwixt two. When we think of the Lord and being with Him in heaven, "Oh, man, I love to be with the Lord." But yet, we look at our family and they still need us and the responsibility is all around us and we think, "They still need me." There is that torn feeling.

And having this confidence, I know that I shall abide and continue with you all for your furtherance and joy of faith (1:25);

“나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으나,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있다. 너희들을 위해 계속 나의 사역을 해야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하고픈 나의 욕망으로 어찌할바를 모르겠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두 사이에 끼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땐, 주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고, 가족들을 보면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책임이 있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1:25)

So, Paul was confident at this point that he was going to be exonerated, which he was, and to continue for a little while yet with them.

That your rejoicing may be more abundant in Jesus Christ for me by my coming to you again. Only let your conversation [manner of life] be as it becometh the gospel of Christ: that whether I come and see you, or else be absent [Now, if he takes my head], I may hear of your affairs, that ye stand fast in one spirit [Now, whether I stay in jail actually that when I hear of you, that this is what I'll hear: that you are standing fast in one spirit], with one mind striving together for the faith of the gospel (1:26-27);

So the desire for the church: one faith, one mind, working together for the faith of the gospel.

이 시점에선 바울이 그들과 좀 더 함께할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홀가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삶의 자세) 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사형 당하더라도)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내가 감옥에서 듣고자 하는 소식은: 일심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1:26-27)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소망은: 한 믿음, 한 마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And in nothing terrified by your adversaries: which is to them an evident token of perdition, but to you of salvation, and that of God. For unto you it is given in the behalf of Christ,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s sake (1:28-29);

Wait a minute, I thought I heard an evangelist the other night saying that no Christian ever needed to suffer if he just had enough faith. Evidently, he didn't read Philippians 1. It is given on the behalf of Christ,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to suffer for His sake.

Having the same conflict which ye saw in me, and now hear to be in me (1:30).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1:28-29)

잠깐만, 지난번에 어느 부흥강사가 그리스도인은 믿음만 있으면 결코 고난을 당치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드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빌립보서 1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1:30)